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李鍾容
編輯人 張玉煥
印刷人 張玉煥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社團 韓國生藥協會
社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 규격화 연기되기까지 : 3면
- 주산단지순례(청양) : 4면
- 구기자시험장을 찾아서 : 4면
- 재배교실(황기) : 6면

우리생약재살려자

지난달 31일, 제26차 정기총회서



◇ 한국생약협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제기동 경동프라자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설립추진 제2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도

국내생약협회의 기반을 조성한다. 대전제... 아래 한국생약협회는... 등을 꾸준히 전개해나

한국생약협회는 지난 달 31일 서울 제기동 경동프라자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백70여명의 각 지역 지부장, 이사, 사무소장, 공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이종홍 회장(생산지단체로서)은 "본회를 다하여 업선된 양질의 한약재를 생산해내는데 주력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국산한약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말하고 "생산지단체들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구자춘 회장, 한국한약도매협회 최준섭 회장, 주식회사 중앙제약 박인환 회장, 태백회 황인구 회장, 대한한약협회 윤제은 회장, 서울시한약도매협회 오금진 회장, 경동한약상가번영회 박찬영 회장, 경동한약가협의회 박오현 회장, 한국의약신문사 김남훈 사장, 조흥은행제기동지점 이상래 지점장

이들 위해 협회는 일차적으로 경동시장 내에 국산한약재 상설매장을 설치하고,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를 열 하박기 중 개최기로 했다. 기존의 중앙한약재상을 새롭게 개조한 국산한약재 상설매장은 4월말 개장될 예정이다. 광복회관 소포장으로 이전된 규격화 품판을 취급, 일반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국산한약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한약재 지거래의 장으로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협회는 94년 사업계획 및 수치 결산보고와 함께 95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안)을 통과시켰다. 95년 주요사업계획으로는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설치와 제2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개최 외에도 △생약도매시장

내년 1월 1일 규격화 시행

농민이 생산한 것도 규격품으로 인정

보건복지부(장관 박정호)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약재 규격화를 내년부터는 농민이 생산한 한약재도 규격품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정호)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약재 규격화를 내년부터는 농민이 생산한 한약재도 규격품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정호)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약재 규격화를 내년부터는 농민이 생산한 한약재도 규격품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정호)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약재 규격화를 내년부터는 농민이 생산한 한약재도 규격품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정호)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약재 규격화를 내년부터는 농민이 생산한 한약재도 규격품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정호)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약재 규격화를 내년부터는 농민이 생산한 한약재도 규격품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정호)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약재 규격화를 내년부터는 농민이 생산한 한약재도 규격품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제26차 정기총회를 축하드립니다

- 국회농림수산분과위 양창식 위원장
- 흥일약업주식회사 송경태 회장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구자춘 회장
- 한국한약도매협회 최준섭 회장
- 주식회사 중앙제약 박인환 회장
- 태백회 황인구 회장
- 대한한약협회 윤제은 회장
- 서울시한약도매협회 오금진 회장
- 경동한약상가번영회 박찬영 회장
- 경동한약가협의회 박오현 회장
- 한국의약신문사 김남훈 사장
- 조흥은행제기동지점 이상래 지점장

중앙회편
가인문의
9654742